“공무원 바로서야 나라가 선다”

공불련 백양사서 신년법회… 지선 스님 당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규, 감사원 감사위원)는 2월 11~12일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2017년 신년법회 및 임원연수’를 열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사진〉

법회에는 정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불자회 임원 130여 명과 이계호 국회의원, 박노원 장성 부군수 등이 참여했다.

김상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풍광이 아름다운 백양사에서 좋은 법문을 듣고, 공무원 불자들이 도반으로서 깨달음을 얻어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은 법문에서 “공익보다 사익을 더 취해버리면 지금의 탄핵정국처럼 돼버린다.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리면 나라가 전체로 깨어있어서 잘 되고,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무질서하고 그야말로 복지부동 국가가 된다”며 “공불련 회원들이 공복이자 불자로서 공심과 신심을 잃지 않고 부단히 정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 선운사, 관음 천일기도 입재

100일마다 법회 통해 수행원력 점검



고창 선운사가 관음천일기도 입재를 시작으로 1,000일에 걸친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

선운사(주지 경우)는 2월 11일 대웅보전에서 관음천일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사진〉이날 법회는 동안거 해제일을 맞아 해제법회 및 정초기도 회향법회도 함께 진행됐다. 법회에는 총무국장 심학 스님, 선운사 초기불전 불학승가대학원장 환성 스님,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장 대원 스님 등 사중 스님과 불자 100여 명이 동참했다.

관음천일기도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천일기도를 통해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평화와 지역 발전, 가정의 안녕을 기원했다.

심학 스님은 불자들에게 “천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의 원력으로 끊임없이 기도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입재한 선운사 관음천일기도는 오는 2019년 11월 17일 회향하며, 100일째마다 별도의 법회를 열어 저마다의 기도와 수행원력을 점검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안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 개최



정월대보름을 맞아 불교신앙과 민간의 토속신앙이 융합된 독특한 형태의 당산제가 열렸다.〈사진〉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와 석포리 당산제 보존위원회(회장 박병우)는 2월 10일 내소사 경내 들당산(일명 할머니 당산나무)과 일주문 앞 날당산(일명 할아버지 당산나무)에서 ‘석포리 당산제’를 개최했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인근 5개 마을 주민 등 300여 명이 동참한 당산제는 불교식 영산작법과 유교식 제례의식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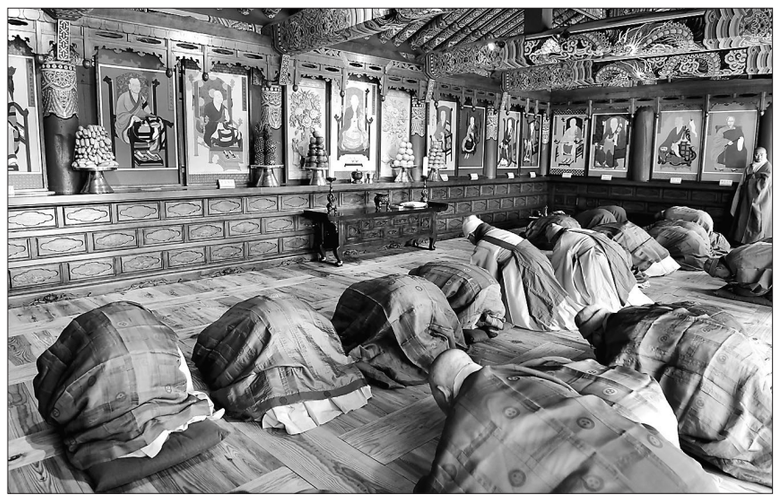
진성 스님은 “내소사 당산제는 사찰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이라며 “당산제를 통해 사찰과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소사 당산제는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에 뿌리내리고 있는 토속신앙을 통해 포교를 병행하며 지역주민들과 사찰이 공존하며 지역발전을 기원하는 풍습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사스님들의 수행원력 잇겠습니다”

구례 화엄사, 역대조사 19명 진영 점안



새로 조성된 진영에 3배를 올리는 화엄사 문도 스님들.

화엄종찰 화엄사의 역대조사 진영이 새롭게 조성됐다.

구례 화엄사(주지 영관)는 2월 12일 화엄사에서 수행한 역대조사 19명의 진영을 새로 조성하고, 점안식과 더불어 화엄문도 추모재 및 신년하례를 봉행했다.

이날 영전에 봉안된 19명의 조사는 화엄사 개창 이래 수행정진과 가람수호에 큰 역할을 한 스님들이다. 창건주인 연기조사를 중심으로 좌우에 자장율사, 원효대사, 의상대사, 관혜대사, 도선국사, 홍경선사, 대각국사, 부용영관, 서산대사, 부휴선수, 벽암각성, 설흥대사, 백암성총, 각황전 중창조 계파성능, 용성조사, 동헌대종사, 근현대 중창조 도광대종사, 도천대종사 등 창건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화엄사 스님들을 봉안했다. 각 진영 재자명문에는 ‘화엄사 창건공덕주 연기조사’와 같이 조사스님들의 원력과 공덕을 글과 그림으로 담았다.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은 추모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화엄사는 역대 훌륭한 큰스님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나 제대로 된 영전으로 모시지 못해 안타까웠다. 이제 도량에 걸맞게 진영을 모시게 돼 감사하다”며 “화엄사의 역대조사 스님들의 수행가풍을 이어받아 수행정진의 마음을 가다듬자”고 말했다.

조사 진영은 전면 5칸 맞배지붕 형식의 22평 목조건물로 대웅전과 각황전 사이에 새로 건립된 ‘영전’에 봉안됐다. 이곳은 앞으로 조사전 역할을 한다.

개창조~근현대 중창조까지
22평 목조건물 ‘영전’에 봉안
송천 스님 · 정경문 불모 동참
전통 · 현대적 미술기법 활용

화엄사 성보박물관장 원묵 스님은 “도량에 걸맞은 진영을 모셔야겠다는 전체 문도의 원력을 모아 3년 전부터 계획을 잡고, 최근 1년간 13차례 회의를 통해 조성불사를 진행했다”며 “여러 자료를 통해 고증을 거치면서 연기조사의 원형을 복원해야겠다는 의미를 담아 조성하게 됐다”고 경과를 밝혔다.

특히 화엄사 창건주 연기조사는 그동안 다른 곳에 진영이 없어 화엄사 사적기에 기록돼 있는 의미를 담고 전통방식과 현대적 미술기법을 살려 복원했다고 밝혔다. 조성불사 그림은 前 통도사 성보박물관 부관장 송천 스님과 해송불교미술원장 정경문 불모가 1년 6개월 동안 참여해 완성했다.

송천 스님은 “그림은 전통방식으로 하되 현대적 미술기법을 더해 다양성을 추구했다. 현대에 조성했지만 전통색채와 재료를 사용하면서 예스러운 무게감을 주었다”고 작품을 설명했다.

한편 진영 봉안식에 이어 각황전에서 진행한 화엄문도 합동추모재 및 신년하례 법회는 죽비 3배를 시작으로 영관 스님의 헌다, 반야심경 봉독, 문도스님들의 헌화, 문장 스님 덕담으로 이어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민간 이주민 지원사업 확대 손잡아

(사)착한벗들–전북은행
한국어교육 · 생활상담 등



(사)착한벗들 회원과 전북은행 관계자들이 협약 후 의지를 다지는 모습.

전북지역 거주 이주민 지원사업을 펼치는 (사)착한벗들이 전북은행과 손을 잡았다.

(사)착한벗들(이사장 회일, 참좋은우리절 주지)과 전북은행은 2월 12일 군산 흥천사 반야회관 2층 JB외국인한국어학당에서 업무협약식을 실시,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학당을 개설했다.

이에 따라 양 단체는 군산 JB외국인한국어학당서 매주 일요일 한국어교육, 생활상담 등을 진행하게 된다. 2017년에는 익산시, 완주군에도 한국어학당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협약 목적은 전북은행과 (사)착한벗들이 전북 지역 내 거주하는 이주민지원 활동을 협력해 나가는 것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인구 특성상,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이주민(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에 대한 지원사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양 단체의 업무협약은 민간 영역에서의 이주민 지원 활동을 다양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착한벗들과 전북은행은 근래 들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학령기를 앞둔 (5~7세)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언어 및 사회성 발달과 학교적응 지원을 위한 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최근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근로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이해 교육은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기업의 고용안정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사업 추진배경을 밝혔다.

한편 201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총 1만1168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이 중 동남아(캄보디아 · 베트남 · 인도네시아 등) 출신이 5,393명(49%)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 화엄불교대학 졸업생 82명 배출

전주 화엄불교대학(학장 성우, 금산사 주지)이 불기2560학년도 졸업식을 봉행했다.〈사진〉

2월 12일 전북불교회관 4층 큰법당에서 봉행된 졸업식에는 학장 성우 스님, 불교회관 총무국장 구담 스님, 안준아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 부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졸업을 축하했다.

이날 졸업한 불교대학 28기는 총 49명. 또한 학림원 23기 33명의 불자들은 1년간 불교기초 교리강좌와 부처님 경전공부, 실참수행, 각종 봉사활동 등의 정규과정을 이수했다.

성우 스님은 졸업사에서 “지난 1년간 공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에 증명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부처님과 같은 자비로움을 바탕으로 사회에 회향하는 불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출강 및 통신 2017학년도 제26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 교육 신입생 모집

탁월한 불교교육과 정명한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은 정통한 법사교육으로 26년의 전통과 신뢰로서 자랑과 긍지를 삼고 있습니다.

①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인증하는 법사자격 법위증이 수여됩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 불학연구원과정(5년) · 불교석학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7년 2월 23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제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3월 9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